

KWC 2021 수상 미수입 와인 열전 AUSTRALIA I

호주는 이번 KWC 2021에서 가장 주목받은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의 이변을 만들어 낸 이들의 와인은 대체로 트렌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KWC 수상에 힘입어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호주 와인이지만 아직 수입되지 않는 보석 같은 와인들이 있다. 한국에서 만나고 싶은 미수입 와인, 호주 편 1탄을 시작한다.

글 임주희 사진 및 자료제공 장영수, 각 와인너리 홈페이지



Dandelion Vineyards

단델리온 빈야드



Dandelion Vineyards
wish you were here...

창립자이자 와인 메이커인 엘레나 브룩스(Elena Brooks)는 어릴 적 우연한 기회로 와이너리에서 통역사 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와인을 접했다. 이후 본격적인 와인의 길로 접어들어 마음 맞는 동료들과 와이너리를 설립했다. 단델리온은 민들레를 뜻하며 이들의 상징과도 같은 민들레 씨앗 레이블에 몇 가지 의미를 담았다. 알렉산드리아 호수에서 에덴 계곡까지 퍼져 있는 민들레처럼 포도밭에 꽃을 피우는 식물을 나타낸다. 또, 소원을 담고 날아가는 민들레 씨앗을 통해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한다. 이들은 젊은 스타일의 와인을 빚으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와이너리 정보 <https://dandelionvineyards.com.au/>

Dandelion Vineyards Firehawk Farm Shiraz

생산지 맥라렌 베일 품종 슈라즈 특징 맥라렌 베일 맨 꼭대기에 있는 싱글 빈야드에서 좋은 바람과 햇살을 받고 포도가 자란다. 정성스레 손 수확한 포도로 와인을 빚어 26개월간 숙성을 시킨다. 파이어호크 팜 슈라즈는 단단하고 밀도 있으며 활력이 넘친다. 카시스, 오디와 같은 베리 향과 가죽, 견과류 향이 어우러진다. 드라이한 탄닌과 적당한 산미, 블랙베리, 블랙 체리와 같은 과일의 풍미가 깊은 맛을 자아내며 깔끔하고 긴 마무리로 이어진다.



De Bortoli Wines

드 보톨리 와인

ESTD 1928
De BORTOLI
FAMILY WINEMAKERS



드 보톨리 와인의 설립자, 비토리오 드 보톨리(Vittorio De Bortoli)는 이탈리아 베네토 지방의 카스텔쿠코에서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주로 여행을 떠난다. 이후 호주에 정착해 1928년에 드 보톨리 와이너리를 세우게 된다. 2대손인 딘 드 보톨리(Deen De Bortoli)와 그의 가족이 드 보톨리의 전통을 이어가며 와이너리를 확장했고 호주 최초로 와인 붐이 일어난 1970년대 당시 새로운 와인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De Bortoli Family Selection Brut

생산지 호주 **품종** 샤르도네, 피노 누아 **특징** 드 보톨리 가문의 본래 고향인 이탈리아를 기념하기 위한 와인이다. 우아한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기 위해 각 빈티지에서 가장 좋은 포도만을 골라 블렌딩해 와인을 빚는다. 신선함과 본연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 차갑게 발효하며 복합성을 더하기 위해 2차 발효를 거친다. 아주 연한 밀짚색을 띠고 있으며 깨끗한 시트러스와 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진다. 미세한 버블이 크림미한 질감을 선사하고 섬세한 산도가 신선한 과일의 풍미를 준다.

드 보톨리 와이너리는 약 90년간 가족 경영 와이너리로서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제로 웨이스트 와이너리가 되기 위해 오늘날까지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와이너리 정보 <https://www.debortoli.com.au/>

De Bortoli Deen Vat 5 Botrytis Semillon

생산지 리베리나 **품종** 세미용 **특징** 호주 와인 산업의 선구자였던 드 보톨리의 2대손인 딘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와인이다. 와이너리 자체 포도밭과 보트리티스 세미용을 생산하는 몇몇 재배자에게서 수확한 세미용으로 빚었다. 천도 복숭아, 모과, 감귤류의 풍미가 입안을 화사하게 채우며 균형 잡힌 산도를 보인다. 디저트 와인으로 마시거나, 식사 후 신선한 치즈와 말린 과일 등과 함께 즐기기에 좋은 와인이다. 바로 마셔도 좋지만 10~15년간 보관 후 마셔도 손색없다.



De Bortoli Wines

드 보틀리 와인



De Bortoli Noble One Botrytis Semillon

생산지 리베리나 **품종** 세미용 **특징** 1982년에 만들어진 노블 원 와인은 세계적으로 많은 상을 받은 와인이다. 오늘날까지 호주의 보트리티스 디저트 와인의 기준이 되는 와인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천도 복숭아, 만다린, 꿀, 바닐라 향, 약간의 향신료 등이 느껴진다. 풍부하면서도 복합적이지만 세련된 단맛과 산미의 균형이 긴 여운을 준다. 디저트 와인으로 즐기거나 북경 오리나 갓 볶은 가리비 요리 등 풍미 있는 요리와 매칭해도 좋으며 트러플과 배를 곁들여 즐기는 것도 추천한다.

Grandeur Wellington

그랜저 웰링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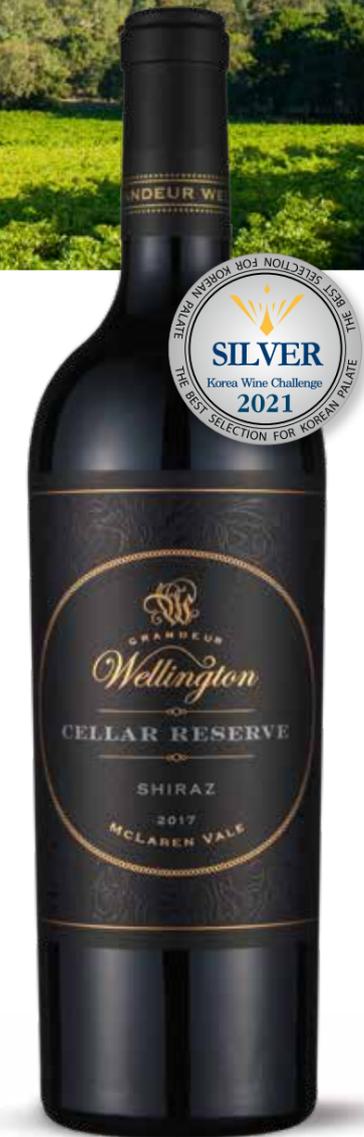


2007년에 설립된 그랜저 웰링턴 와이너리는 18세기 역사의 확을 그랜저 웰링턴 장군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작명되었다. 맥라렌 베일에 있는 이들의 포도밭에는 싱그러운 햇살이 내리쬐며 세인트 빈센트 만을 따라 신선한 바닷바람이 불어온다. 로프티 산맥과의 근접성 덕분에 이른 아침에는 언덕에서 시원한 바람이 내려와 뜨거운 한여름에도 포도가 상쾌한 산도와 풍미를 유지할 수 있다. 설립자 피터 니콜라이디스와 와인 메이커 토니 드 리시오의 시너지로 매해 좋은 와인을 생산하며 모든 병에는 이야기가 있다는 신념 아래 그랜저 웰링턴만의 역사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와이너리 정보 <https://grandeurwellington.com.au/>

Wellington Cellar Reserve Shiraz

생산지 맥라렌 베일 **품종** 슈라즈 **특징** 호주하면 떠오르는 품종인 슈라즈로 빛은 와인이다. 셀러 리저브 와인을 위해 최고의 배럴만을 선택해 24개월간의 긴 숙성을 거쳐 만들어졌다. 와인 메이커의 기준에 충족되고 무엇보다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와인을 빚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단단한 탄닌과 묵직한 바디감이 조화를 이루며 긴 여운을 남긴다. KWC 2021에서 셀러 리저브 슈라즈의 2017, 2018 빈티지가 모두 실버 메달을 수상해 와인의 품질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Grandeur Wellington

그랜저 웰링턴



Wellington Cellar Reserve Cabernet Sauvignon

생산지 맥라렌 베일 **품종** 까베르네 소비뇽 **특징** KWC 2021에서 베스트 호주 레드로 이름을 날린 와인이다. '호주 와인은 쉬라즈'라는 편견을 깬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빚은 와인이라는 것이 인상적이다. 잘 익은 블랙커런트와 검붉은 베리류의 풍미, 유칼립투스과 같은 허브 향이 느껴진다. 기분 좋은 산도와 부드러운 질감이 입안을 가득 채우며 무엇보다 마시기 쉬운 와인이다. 와인의 풍미가 풍부해서 구운 양고기, 소고기 스테이크, 구운 가금류 등과 궁합이 좋다.



Wellington Gen 62 Cabernet Sauvignon

생산지 맥라렌 베일 **품종** 까베르네 소비뇽 **특징** 오크 숙성이 주는 복합적인 풍미가 돋보인다. 포도는 숙성을 통해 다양한 천연 향미가 농축되며 배럴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도와 탄닌이 부드러워진다. 한 잔 채워 마셔 보면 마시는 즐거움이 있다. 강렬한 블랙베리, 블랙커런트, 자두의 과실 향과 가죽, 삼나무 향이 어우러지며 매끄러운 풀바디 와인을 선사한다. 붉은 육류와 스테이크, 파스타, 가벼운 스낵, 신선한 치즈, 올리브 절임 등 어느 음식에나 잘 어울린다.

Grandeur Wellington

그랜저 웰링턴



Gen 69 Shiraz

생산지 맥라렌 베일 **품종** 슈라즈 **특징** 짙은 붉은 빛을 띠는 풀바디 와인이다. 고품질 포도만을 사용하여 소량씩 발효효 와인을 빚는다. 프랑스산 오크, 미국산 오크에서 18개월간 숙성한 뒤 병입되어 부드러움과 깊은 풍미를 가지고 있다. 신선한 블루베리의 과실 향, 모카 초콜릿, 감초 등의 풍미가 한데 어우러진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감미로움과 구조감이 특히 인상적이다. KWC 2021에서 젠 69 슈라즈의 빈티지 2017과 2018이 모두 골드 메달을 수상했다.

Greenock Estate Wines

그리녹 이스테이트 와인



그리녹은 남호주 최고의 와인 산지인 바로사 밸리에 있는 와이너리로, 1948년 첫 재배가 이뤄졌던 싱글 빈야드에서 이름을 따왔다. 설립자 프레데릭 리우와 4대째 포도 재배를 하고 있는 스티브 커츠가 마음을 모아 만든 브랜드이기도 하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후 경험이 풍부한 포도 재배자로부터 다양한 품종을 공급받아 레드뿐만 아니라 화이트, 로제, 스파클링, 포티파이드 등 다양한 레인을 선보이게 된다. 그리녹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와인을 빚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와이너리 정보 <https://www.greenockestate.com/>

Greenock Cabernet Sauvignon

생산지 바로사 밸리 **품종** 까베르네 소비뇽 **특징** 그리녹의 포도는 싱글 빈야드에서 자라 느린 숙성과 과일 중심의 스타일을 보인다. 70년된 울드 바인에서 재배 후 프랑스산 오크통에서 22개월간 숙성을 거친다. 다크 초콜릿, 자두잼의 뉴앙스와 무화과, 크랜베리의 진한 과실미가 느껴진다. 단단한 탄닌이 구조감을 주며 오크 향, 버섯 향, 캐슈넛 향이 뒷맛으로 퍼져 우아한 매력을 뽐낸다. 2,000병 한정 생산되어 희소성을 겸비하고 있다.

